

# 기업경영에 있어 정보기술사용에 따른 윤리의식

허정식\*

— 目 次 —

## I. 서론

- II. 변모하는 지구촌 경제의 패러다임
- III. 시스템에 관련된 윤리적 사회적 이슈
  - 1. 윤리적 사회적 이슈 모델
  - 2. 다섯 가지 도덕적 범주
  - 3. 정보기술 경험

## IV. 정보화 사회에 있어 윤리

- 1. 한국인의 윤리의식 근간
- 2. 서구인이 보는 정보기술에 대한 윤리
  - (1) 윤리적 분석
  - (2) 중요한 윤리 원칙들
  - (3) 윤리규약 사례
- 3. 기업의 정보문화와 윤리

## V. 결론

< 참고 문헌 >

## I. 서 론

다가오는 세기에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모두 인지하고 있다. 기업경영이나 기타 관리분야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숙달해야 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더불어 정보를 취급하는 자세 -<윤리>-형성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도 인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정보시스템이나 정보 기술을 개발하고 취급하는 기술적, 기능적 문제에는 관심이 있으나 그들로 인한 전통적 지구촌 삶이 온통 뒤바뀌어져 변모해 가는 세기의 패러다임이나 이들을 사용하는, 기업경영에서 정보기술을 사용하는 자세(윤리의식)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 동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상학부,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회장

한 조직의 자동화계획이 그 조직 -<영리조직이든 · 비영리조직>-에 많은 효율과 절약을 약속하기도 한다. 우리의 삶, 기업활동에 있어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능하게 돋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기술 사용 前後에 있어 자료를 다루는 자세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는 많은 실업을 만들기도 하고, 한 조직이나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다. 또한 조직의 효율성(Effectiveness)과 효과성(Efficiency)을<sup>1)</sup> 산출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가하면, 사용자와 그 대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명제 하에 정보 기술을 접하고 있는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윤리적 ·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킨다.

개인에 대한 정보권리, 그 정보권리를 어느 선까지 보장하느냐 하는 것도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가령, 지적 재산권 보호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사용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어떤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기업활동등에 대한 책무 개인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는 표준 시스템 설정, 정보사회에서 양질의 가치나 제도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문제들이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本 論文에서 변모하는 지구촌 경제의 흐름에 있어 정보기술 사용에 따른 윤리적 자세,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에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술관리에 대한 윤리 의식등을 검토하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II 변모하는 지구촌 경제의 패러다임

자본주의 성립기인 1776년, 「국부론」을 출간하면서 근대 경제학의泰斗 애덤 스미스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이다」<sup>2)</sup>라고 단언했다. 스미스는 정부를 규제의 상징으로, 경제 활동을 억압하는 실체로 절타하면서 국부를 제한하는 최대의 적으로 지목했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핵심을 자유, 구체적으로 생필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의 활동에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미스만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시 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고 있던 신흥 상공업자들의 염원이었다. 그 염원은 시민혁명으로 연결되었고 「주역」들은 절대 왕정을 폐지, 작은 정부를 쟁취했다. 그리고 작은 정부 아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은 거침없이 시장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각종 규제 정책을 만들었다. 급격한 경기변동과 녹점 등 시장 실패를 제어하기 위해 시장 개입도 확대하였다. 특히 2차 대전후 각 정부는 복지국가의 이상 아래 이같은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자유로워진 무역의 급성장, 세계 경제 호황의 1960년 대는 「시장경제의 황금기」라 일컬어질 만큼 국부의 증가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기업들이 규제를 받고 복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벼틸 수 있었다.

1970년대 1·2차 석유 위기로 모든 지구촌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은 급격한

1)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어의는 각각 "doing the right things"의 의미를 갖고 있다.

David H. Holt, Management, Prentice Hall, 1993. P.24

2) 조순 外, 아담스미스 연구, 민음사, 1989, P.156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복잡성, 다양성, 단절성, 불확실성, 위험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한時點이었다. 70년대 글로벌 환경은 경제, 자원 민족주의화, 경제 지역주의화, 경제 보호주의화, 경제적 상호주의를 낳았다. 그리하여 저 성장기에 접어들어 5%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하던 서구 국가들이 평균 3%정도의 선진국형 저 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윤 뜻은 작아지고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 및 생산의 자동화를 촉진했고, 노임이 싼 지역을 향해 생산 시설의 이전을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복지 지출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다시 문제삼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사회 각집단간의 타협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패러다임의 반전(反轉)은 저 성장기로 접어들면서 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패러다임의 본격적인 반전 시기를 1980년대라고 보는 것 같다. 이 당시 지구촌 사업 경영 환경은 민족주의가 가일층 강화되었고, 지역주의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불리화 추진이 확산되었으며, 보호주의도 가일층 강화되었으며, 다자주의의 약화에 반비례하여 상호주의와 맥락을 같이하는 쌍무주의가 강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로 인한 이윤 뜻이 작아지고 선진국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후진국의 개발 붐으로 외부의 이윤 기회가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비지니스의 영역이 확대되었고, 시간과 공간의 초월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 인한 정보기술의 개발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사업분야에 Computer와 Communication Technology -<Internet>-의 급속한 이용 확대를 놓게 이룬 것이다. 기업들은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있는 곳에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형태로 재편성이 단행되어지고 있다. 1980년 후반부터 글로벌 사업 환경 변화는 냉전의 종식, 경제중심으로 체제 변화, 독일의 재통일, 동유럽·중국등의 시장경제 도입 체제화, 소련 연방의 붕괴와 독립국 연합(CIS)의 출발, 경제 지역주의 강화, 다자주의 약화, 동아시아 시장의 급성장과 TRIAD의 재편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 전세계적 자본 부족과 이자 상승 가능성, 제3차 석유 위기, 지역 분쟁의 빈발등으로 지구촌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sup>3)</sup>

이같은 사업환경하에서 자본의 대탈출은 선진국 정부에 규제 완화를 강요하는 더없이 강한 압력이 되고 있다. 불리하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조건앞에 정부는 스스로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대반전의 구체적 기점의 계기는 1989년의 「몰타선언」, 즉 냉전의 맹주인 미·소양국 사이에 합의된 냉전 종식 선언이다. 이로써 규제와 규범 그 자체이며 시장 질서를 국가 계획으로 대체한 「공산주의」의 70여년간의 실험을 끝내고 역사의 뒷장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지구촌 사업 환경의 정치적 변화는 서방세계의 다국적기업들에게 규제 혐오증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규제 덩어리」 즉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것은 역사적으로 거대 국가의 실험도 함께 끝났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저편」의 평등주의를 의식, 경제적 약자에 부여했던 보호 차원의 규제도 정치적 실효성을 상실했다. OPEC의 오일基金과 기타金融資本이 주도한 자본의 국제화는 이같은 상황변화에 힘입어 생산 자본을 급속하게 전세계로 분산시키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공간 개념을 소멸시킨 정보 통신 혁명과 함께 90년대 들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다.

3) 반면길, 국제마아케팅, 박영사, 1994, P. 62-77

종횡무진 이윤을 찾아 신시장 (New Market)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본주의 초기 완전 자유를 누린 것처럼 이제 벽이 허물어진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무한한 자유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이제 세계화와 규제 완화의 제동을 걸 장치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어느 나라가 더 많이 규제 완화를 실시해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 만족(Consumer Satisfy)을 이룰것이냐가 관건일 뿐이다. 세기말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 국민경제를 단위로 안정적 경제 성장을 해 오던 수정 자본주의가 이제 90년 후반에 들어 생존을 위한 완전 경쟁의 순수 시장경제를 실현해 가고 있는 마당이다.

이 시점에 정보시스템 -<정보기술>-의 사용은 완전경쟁을 위한 국제적 투기장(International Arena)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이용)의 윤리적 · 사회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 III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윤리적 · 사회적 이슈

G7국가들은 경제정책을 평화적인 경제성장의 계획을 수립하여 생존(Survival)을 위한 혈투의 경제성장의 시대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경쟁 우위의 사업 경영에서 상실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생존을 위한 경쟁우위 확보의 한 도구(Implement),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을 손꼽는다. 이점과 위협(Profit and Risk)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 도구 사용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도구(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점-<효율과 해악>-의 출현은 시스템에 관련된 윤리적 · 사회적 이슈를 제기한다.

윤리란 개인의 행동을 지도해 주는 도덕적인 근원으로서 개인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사용되는 원천을 말한다.<sup>4)</sup>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과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은 개인과 사회에 독특한 문제점을 초래한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IT와 IS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보기술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세계 모든 시장을 침투할 수도, 신시장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조직의 파워를 하부구조로 이양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많은 실직자를 낳을 수도 있다. 때로는 정보를 훔치거나 파괴하는 새로운 종류의 범죄를 창출할 수도 있다.

한편, 새로운 정보기술은 과거의 상품대신에, 새로운 상품을 창출할 수도 있고, 엊그제 상품을 만들었던 종업원들을 해고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기술이 본질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능성을 만드는 최초의 기술은 아니다. 증기기관, 전기, 내부 연소 엔진, 전화 및 레디오 등은 그들이 만들어져 사용되던 당

4) 세계대백과사전, 전 16권중 4권(사상), 1979, P.168.

시 개인의 행동이나, 사회 변화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그 당시, 이러한 신 기술은 즉 -<가치있는것들>- 현재의 권력, 돈, 권리, 의무 등을 배분하는데 위협이 내재하였다. 승자(Winners)와 패자(Losers)를 창출하는 정보기술의 개발은 많은 이점(Benefits)을 생산하는가 하면, 다른 비용을 창출하기도 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 과연 행위(行爲)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책임이 무엇일까? 그러나 사회는 기술적인 변화를 방지하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사회(Societies)는 기술에 의한 변화 그 영향을 완화시키고 文明을 변화시키며, 피해를 입은 개인들을 보상해 흐트러진均衡을 再定位 시키려는 시도를 수세기 동안 해 왔다.

기술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른 사회적 요소(element)와 함께 기술도, 사회의 여러 구성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제약을 받은 사회적인 한 요소(a factor)인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사회가 부여하는 제약과 조정을 하는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 1. 윤리적 · 사회적 · 이슈 모델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은 이를 사용하는 개인, 사회, 그리고 기업에 대하여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호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정보기술의 관리자로서, 지휘자로서 경영자가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적, 정치적 논쟁에서 반영되고 있거나,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델 <그림 1 - 1>을 검토한다.

새로운 정보기술의 출현은 사회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개인이나 사회, 정치적인 계층에서 다뤄야 하는 새로운 윤리, 사회 정치 이슈를 부각시킨다. 이러한 이슈들은 5가지 도덕적 범주로 나타난다.(그림 1 - 1)<sup>5)</sup> 정보에 대한 권리와 의무, 재산권과 의무, 시스템의 질, 삶의 질 그리고 책임과 통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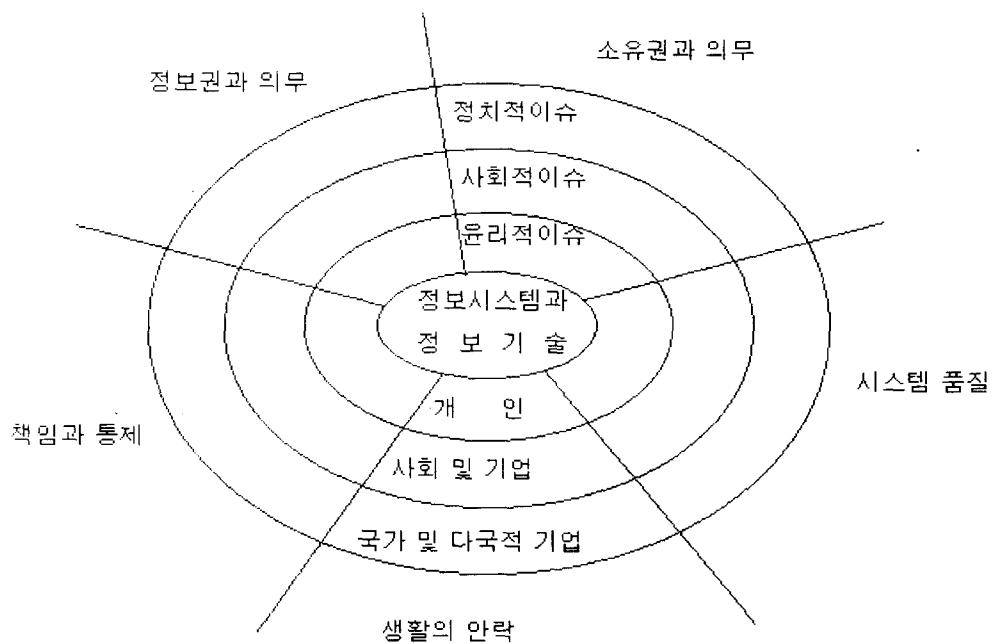
한여름의 조용한 연못을 상상하라. 그것이 사회(사회 : Society)라 가정하자. 그리고 개인, 사회, 정치적 제도, 그리고 부분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섬세한 생태계를 상상하라 개인은 연못(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안다.

사회적인 제도(가족, 교육, 기관)는 개인의 행동에 필요한 세련된 규율을 그 시대 文明을 바탕으로 만들어 왔다. 이를 규율은 정치권에서 개발된 법에 의하여 보완된다.

이들 법은 개인의 행동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있다. 연못의 중심에다가 돌을 던지는 것처럼 새로운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은 조용했던 사회에 크나큰 충격( Impact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갑자기 개인들은 과거의 상황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에 마주치게 된다. 전통적 사회제도는 이러한 파문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의 바른 행동, 사회적 책임, 정치적 올바른 태도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칙을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적 제도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前에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法을 만들기 前에 實生活의 현실적 삶에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事例를 필요로 한다.

5) Kenneth C. Laudo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Macmillan, P.701



<그림 1 ~ 1> 정보사회에서 윤리, 사회, 정치적 이슈의 관계 Model

## 2. 다섯 가지 도덕적 범주

윤리, 사회 기업 활동 그리고 정치문제에 관한 문현조사 과정에서 5가지 도덕적 범주를 제기하게 되었다. 다섯 가지 도덕적 범주란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정보권과 책임(Information rights and obligations) : 자신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각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정보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각개인들은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같은 정보 연관하여 개개인이나 조직은 어떤 책임을 갖게되는가. 둘째, 재산권(property rights) 소유권에 대한 추적이나 그리고 밝히는 것이 어려운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지적 소유권이 보유될 것인가. 셋째, 책임과 통제(accountability and control) :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 그리고 지적 소유권에 해를 끼쳤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배상을 해야 하는가. 넷째, 시스템의 질(system quality) : 개인의 권리나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느 수준의 자료나 시스템의 품질을 요구하여야 하는가. 다섯째, 삶의 질(quality of life) :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는가. 우

<sup>6)</sup>Ibid., P.702

리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어떠한 문화(文化)적 가치나, 실제 상황이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는가?

이러한 측면을 분석하기 앞서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중요한 기술적 시스템 경향을 검토한다.

### 3. 정보 기술 경향

여러 측면에서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있어서는 이러한 사회적 경영적 문제들은 오랜 세월동안 정보기술 출현 이전에도 언급되어져 왔다. 이것들은 사회나 여러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지속되어온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은 윤리적인 관심 사회적 관심을 기업 조직으로 하여금 한층 더 높여 왔으며 현존(現存)하는 사회적 배치(Social Arrangement)에 하나의 스트레스로 作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은 현재의 법을 구식으로 만들었으며, 實存法들을 약화시켜 무력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책임을 가하는 4가지 중요한 기술적 경향을 검토한다. 첫째, 처리 능력 배가(The doubling of computer power) ; 1980년 이후에는 18개월을 단위로 매번 컴퓨터의 자료 처리 및 계산능력을 배로 증가하여왔다. 이러한 배가된 처리 및 계산 능력의 증가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의 생산과정이나 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경영 활동을 위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나 또한 시스템 자체나 시스템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 실수(error), 넉넉지 못한 자료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다. 사회적인 규율이나 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아직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정확성, 신속성, 대량성 및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처리능력등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표준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 강요되어지지도 않고 있다. 둘째, 자료저장 확장(Advances in data storage) ; 자료저장 기술의 확대와 발전, 자료저장 비용의 급속한 감소는 개인-< 종사원, 고객, 잠재적인 고객 >-이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했고, 자료기지(data base)에 용량을 확충시킬 수 있게 하였다. 한 예로써 달라스의 한 광고회사에서는 EMASS저장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의 거대한 저장시스템을 선전하였다. 「이 저장 시스템은 27 스퀘어풋스페이스(27 square foot space) - 약  $8 m^2$  정도의 공간에  $10^{12}$  byte를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저장비용은 기가바이트(giga bytes)당 약 2분 정도이며, 1초당 십오메가바이트(15Mega bytes)의 전송속도를 갖고 있으며 수초내에 한 레코드를 추적 판독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Datamation, 1992)」 이 시스템은 온라인 전송처리에는 약간 늦고 심지어 150 milliseconds의 액세스(access) 시간을 갖고 있는 600 mega byte보다는 늦지만 거대한 파일을 빠르게 다루며, 작은 공간을 차지한다. 현재 거대한  $10^{12}$  사이즈의 저장시스템은 지방에 거주하는 소매업들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에 충분히 비용 면에 있어서 저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단에서도 고객의 신용조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보편화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셋

째, 자료검색 기술발전(advances in data mining techniques)의 사회적 관심을 드높인 세번째 기술적인 경향은 거대한 자료베이스(database)에 의한 자료검색 기술의 발전이다. 예를들면, 미국에서 Hallmart카드사, K-mart, Wal-mart상점 그리고 American Express등에서는 고객의 구매패턴을 신속히 판별하고 적절한 구매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적은 비용의 병렬처리 방식의 초대형컴퓨터(Super Computer)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한 소매업소에서 고객의 구매 패턴을 연구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했다. 중서부지역에 살고 있는 한 고객이 오후 5시에 일회용 기저귀를 구입하였다면 다음에 가장 흔히 사는 상품은 6개짜리 맥주 상자였다. 그렇기때문에 그 소매상은 기저귀칸 옆에 맥주를 놓아두었으며 그 다음칸에는 스낵을 놓아두었다 이 예가 좋은 사례일 것이다. (The Wall Sheet Jou - inax, 1992년 12월 23일자)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정보검색 기술은 개인(고객)의 삶의 유형을 즉 프라이버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이다.<sup>7)</sup> 슈퍼컴퓨터의 확산은 사회의 공평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 있어 슈퍼컴퓨터는 사회의 엘리트그룹(대기업종사자, 정보조직원, 전문 직업인)에 의하여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대형컴퓨터를 사용하는 엘리트집단은 개인이나 소집단에 비하여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힘을 갖게 되었다. 넷째, 장거리 통신 하부구조 발전(advances i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과 NREN(National Research Education Network)과 같은 통신 하부구조의 구축은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데스크탑 기계(PC)를 사용하여 수 많은 자료를 검색 가능하게 하고 있다.

Local Bell영업회사는 규정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ISDN을 채택하여 사용하는데 늦어졌다. 하지만 통신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BOC회사는 신문제작연합회 그리고 케이블 TV 연합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다양한 범위의 정보 서비스 -<뉴스, 스포츠, 영화, 음성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까지 많은 가정이나 사업장은 초당 일백메가비트(100 mega bytes)로 전송할 수 있는 전송선(communication line)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능력은 거대한  $10^{12}$ 크기의 자료기지(data base)를 검색하는 비용을 급격히 감소시킬 것이다.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자료베이스의 규모나 정확성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허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통계청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개인에 대한 정보를 기술의 발전에 의하여 우리는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개인이나 사업장에 이용할 수 있는 전국적인 디지털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은 많은 윤리적, 사회적, 기업 활동, 국가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누가 이러한 통신망에 흐르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될 것인가. 당신에 관한 정보를 누가 추적하는가. 이러한 네트워크시스템(Network System)은 가족, 일, 레저 사이에서의 전통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음은 정보화 사회에서 윤리를 논하고자 한다.

7) Laudon, MIS, Macmillan, 1993. P.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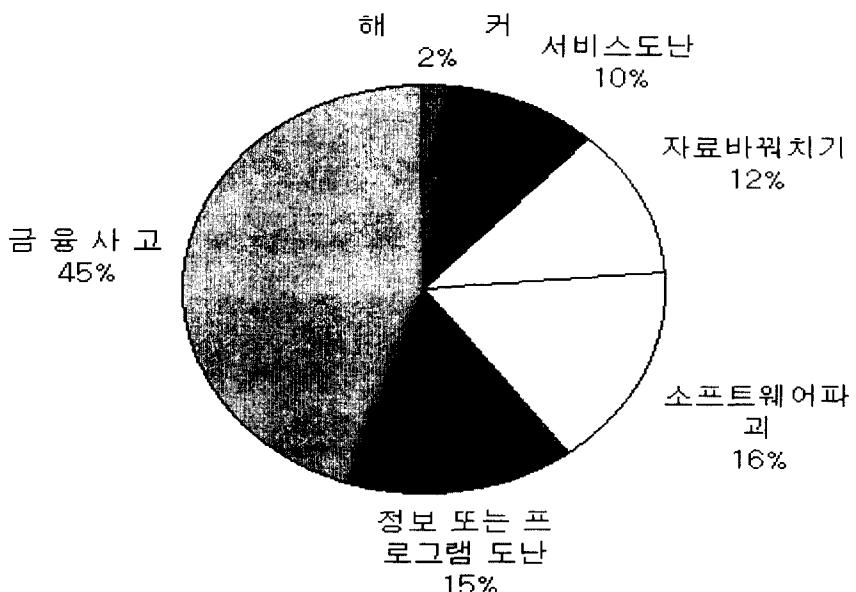
#### IV. 정보화 사회에 있어 윤리

토지, 자본, 노동이 생산의 근간이 되었던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의 초기와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지식(Knowledge)과 정보(Information)가 보다 중요한 생산자원으로 출현하였다.

정보자원은 경제구조, 사회구조, 국가간의 장벽등을 허물고 지구촌 전체를 재편성하고 있다.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다루는 공학적 기술이나 논리적 소프트웨어나 그 주체가 기업의 몫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기술 및 정보생산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개발, 생산, 가공할 것인지, 산출된 정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용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정보기술에 의한 정보사용의 문제점을 <그림 1-2>을 검토하자.<sup>8)</sup>



<그림1-2> 정보기술에 의한 정보사용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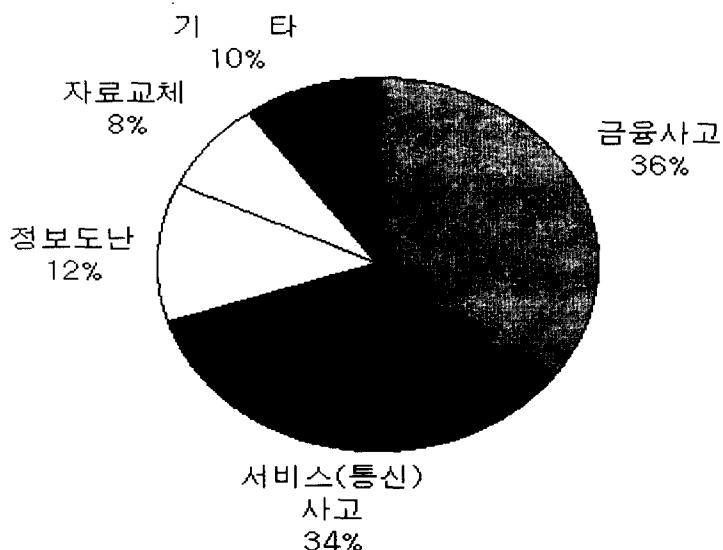
자료제공: Information Week, 1988년 2월 22일

Reprinted by permission of Information Week Magazine, a CMP publication, Manhasset, NY

1988년 2월 22일자 Information Week지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컴퓨터 범죄중 금융사고가 45%에 이른다. 자료 및 프로그램 사고는 15%, 소프트웨어 파괴나 손실은 10%, 자료대체 사고가 12%, 서비스(우편, 전선, 전화)업무사건이 10%, 해커 불법침입등이 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0년 3월 12일 Computer World라는 잡지(Magazine)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sup>9)</sup>

8) Laudon,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Dryden, 1991. P.574



<그림 1-3> 컴퓨터 범죄

자료제공: Alexander, Michael "computer crime : Ugly secrets for Business" computer world. March . 12. 1990

금융사고가 36%, 서비스(통신)사고가 34%, 자료도난 및 정보손실이 12%, 자료교체 8%, 기타 10%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3에서는 금전사고는 축소되었으나, 반면에 통신서비스사고가 무려 24%나 증가한 사실이다. 정보기술을 다루는 사용자나 관리자들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에 정보기술상승에 따른 정보사회에서의 윤리의식을 검토하기 위한 행위의 근간인 한국인의 윤리 의식을 검토한다.

## 1. 한국인의 윤리 의식 근간

인간의 고귀한 가치나 존엄성이 무시되고 금전 만능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의 초기만해도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인간 행위의 근간이 되었으며, 도덕적 규범은 수시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는 因果應報와 慈悲의 윤리가, 조선시대에는 三綱五倫을 기초로 한 유교의 윤리의식이, 모든 행위의 중심윤리였다. 중세 서양에서는 크리스트교(Christianity)의 윤리의식이 삶의 중심원리였다<sup>10)</sup>.

이같은 현상은 대체로 사회가 큰 변동 없이 존속되었고,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이 기

9) Kenneth C. Laudon · Carol G. Traver, Information Technology, 1995 by boyed & fraser Publishing Company , P.382

10) 진교훈(秦教訓),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윤리의식의 변천, 한국국민윤리학회, P.89-107

존의 윤리의식에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는 상황이 크게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사회구조(Social Structure)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나, 전통적 윤리의식은 새로운 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의식 속에 지양되고 改選되어야 할 많은 내용들을 다해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전통은 대체로 오랜기간동안 여러사람들의 지혜가 축적되고 많은 수정과 보안을 거쳐 이루어진 사회질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문화적 존재이며 역사적 존재라고 말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은 전통의식과 단절되어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전통과의 단절은 윤리의식에 큰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많은 현대인들은 가치 혼란의 상황 속에 놓여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규범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기술은 지난 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은 윤리적인 반성을 배려하면서부터 인류에게 엄청난 재난과 특히 인간의 윤리의식에 큰 타격을 가했다.

기술(Technology) 그 자체는 자기 반성과 절제를 모른다. 기술 발전은 지구의 중요한 자원을 급속하게 소모시키며 마침내는 자연 파괴와 가공할 공해를 초래케 했으며, 인구 집중, 즉 도시화와 공업화를 초래했다. 산업의 고도 성장은 대량생산 체제를 이룩하였다. 이같은 체제는 정보기술의 필연성을 출현시켰고, 이같은 정보기술(IT)은 인간에게 많은 이로운 면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그림 1-1과 1-2참조)을 냉기도 한다. 때로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한다. 유물론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측면과 기계적인 측면만을 문제삼고 마침내 인간을 사물화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의 고귀한 독자적인 정신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적 산물인 윤리적 세계는 유물론자들에게는 부인되어 온게 사실이다.<sup>11)</sup> 인간은 존존엄성과 권위를 잃게 되고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요, 중심인 도덕을 잃게되었다.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된 기계가 아닐 뿐더러 단순히 짐승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인간을 측은해할줄 알며, 부끄러워할 줄 알며 사양할 줄 알며, 옳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알며, 사랑할 줄을 아는 인간성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불편 부당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양심 성찰을 할 수 있는 존재자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인간의 삶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인간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윤리적 존재이다. 인간을 정신적 존재라고 말할 때 '정신'이라는 말은 자기 억제와 금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생활은 금욕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수도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청빈과 절제를 그토록 중요시하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다른 동물처럼 일정한 자연 환경에 알맞도록 모든 육체적 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축적된 문화적 전통을 간직하고 사회 안에서 다른 인간들과의 만남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완성해 간다.

인간은 그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문화를 끊임없이 새롭게 창조해감으로써 스스로를 향

11) Ibid., P. 99.

상 새롭게 창조해 가는 존재이다.

「셀러」는 이와 관련해서 “인간은 동물처럼 좋은 성질을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자기 형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개방된 존재이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지구의 종말을 고하는 듯한 위기는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과학, 기술의 무모한 발전의 결과이다. 이제 과학은 탈 가치적인 것일 수 없다.

과학, 기술은 자연 보전과 인류의 공존 공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져야하고,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원래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과학, 기술은 폐기되어야 한다. 핵탄두가 폐기되어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보기술은 윤리에 기반을 두고 다루어져야 하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등한시 해 왔던 전통적인 윤리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사회에서 인간의 적응에 따른 모든 가치와 기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시대, 어떤 장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人格價値는 절대적 가치이다. 이 절대적 인격가치는 사람의 작용에 의해 파악되며, 敬畏心이 이에 수반된다.

이 인격 가치는 도덕 가치에 그 기반을 둔다. 이 인격가치가 작용하여 도덕적 질서 속에서 균원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한다. 윤리(ethic)는 삶과 사회와 세계에서 무엇이 가치있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며 또 윤리 의식은 가치의식을 인간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다. 참된 가치를 항상 修行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도 가치는 엄연히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서양문화가 생명을 상실한 죽은 문화로, 비인간화되어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서양의 철학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대상을 분리시키고 있는 이른바 정신 分離的 사고에 젖어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꾀하고 知, 情, 意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홀히 취급되어 온 동양의 전통적 윤리의식을 이 시대의 징표에 따라 재해석하여 동서양의 윤리사상의 융합을 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다가오는 정보기술사회에 있어 윤리의식 정립에 대한 준비와 입법조치등이 참으로 미비하다. 이는 정보기술개발에 뒤지지 않는 중요한 일인 것이다.

## 2. 서구인이 보는 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의식

윤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윤리는 개인의 선택에 관한 것이다. 선택의 여러 기초에서 있을 때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윤리이다.<sup>12)</sup>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예를들어 판단력의 결여, 상황적 요소, 강요된 선택등 우리의 선택이 제약을 받거나 약화되는 상황에서는 윤리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렵게 된다.

12) Laudon,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Information System, MIS, Macmillan, 1993.

P.703-704

윤리적인 선택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 개개인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결심이다. 책임(Responsibility)은 개인에 대한 사항으로서 윤리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개인 책임이란 내가 내건 결정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손실 그리고 내건 결정에 대한 의무를 내가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식 책임(Accountability)은 개인의 사항이 아니라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사회조직에 관한 것이다. 즉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를 결정하는 구조(Mechanisms)를 말한다.<sup>13)</sup>

누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하는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스템이나 제도는 윤리적인 판단과 윤리적인 행동을 본질적으로 취할 수 없다.

법적 책임(Liability)은 책임에 대한 개념을 법적인 테두리로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책임은 정치제도에 관련된 사항이다. 이러한 법적 책임은 다른 행위자로부터 받은 피해나, 혹은 시스템이나 조직체로부터 입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혜용하는 法典을 제공한다.<sup>14)</sup>

법 절차(Due Process)는 한 사회를 법치사회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법 절차란 절차(Process)를 통하여 법이 알려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기본적인 개념은 정보시스템은 물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첫째, 정보기술은 사회 조직, 기구, 개인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시스템 자체는 스스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떠한 정보시스템의 영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회 조직, 제도, 개인 행동에 의한 산물이다. 둘째, 기술사용으로서 야기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기술을 사용하기로 결성한 조직이나 기구, 개개인의 관리자에게 주어진다. 정보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행동이란 사용한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된 결과를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셋째, 윤리적인 정치사회에서는 법절차(Due Process)라고 하는 일련의 법을 통하여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여진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

(1) 윤리적 분석 (Ethical Analysis)<sup>15)</sup> : 윤리적인 문제 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며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할 시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섯가지 절차를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일어난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디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처음에 보고된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다. 사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윤리적 문제에 관련된 상대방측을 사실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갈등요인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문제점에 관련된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윤리적 가치(Value)를 찾아야 한다.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항상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가치를 참고한다. (예 : 자유, 개인의 권리, 재산이 보호, 자유기업제도). 셋째, 문제에 관련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라. 모

13) Ibid., P.706

14) Ibid., P.707

15) Ibid., P.706

는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에는 이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게임의 승패에 따라 들판 실이 있는 운동선수들처럼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러한 상황에 투자한 사람들, 특히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그룹이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이러한 것은 나중에 해결책을 찾는데 유용하다. 넷째, 당신이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발견하라. 어떠한 대안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대안은 다른 대안보다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방법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때때로 훌륭하고 윤리적인 해결에 도달한다는 것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하고 균형된 해결책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당신이 제안하는 대안들로부터 야기될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라. 어떤 대안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올바른 것이며 다른 관점에서는 불행을 초래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제시된 대안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항상 당신 자신에게 만약이 대안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당신의 분석이 끝난 후엔 어떠한 윤리적 원칙과 법칙을 의사 결정에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유의 기본적이고 우선되는 가치를 의사 결정에 사용될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중요한 윤리 원칙들(Candidate Ethical Principles)<sup>16)</sup> : 많은 윤리적인 원칙들 가운데 윤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들 원칙들은 오랜 역사를 거쳐 존재하여 왔으며 여러 문화에 깊은 뿌리를 내린 윤리 원칙들이다. 첫째,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황금 rule) 당신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취할 행동이 어느 누구에게도 올바르게 보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적합하지 않다. (Immanuel Kant's Categorical Imperative). 당신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조직이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 행동이 계속적으로 용납되어질 수 없다면 그 행동이 언제든지 수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테카르트의 변화의 rule). 이것을 “미끄러운 비탈길 법칙(slippery - slope rule)”이라고 한다. 즉, 하나의 행동이 현재는 수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계속될 때 결국은 수용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법칙이다. 다시 말하면 한번 경사진 미끄러운 길 아래로 향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멈출 수 없다는 말이다. 넷째, 드높고 고귀한 가치를 성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the Utilitarian 원칙) 이 원칙은 가치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며, 여러 가지 취한 행동의 결과를 이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한다. 다섯째, 최소한의 해를 입거나,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행동을 취하라(위험 최소화의 법칙 <Risk Aversion Principle>). 어떤 행동은 확률적으로는 적지만 실패했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에 핵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와 같다. 혹은 어느 정도 일어날 확률에 높은 피해를 주는 경우, 예를 들면 과속이나 자동차 사고 등이다. 이러한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

16) Ibid., P.707

동을 피하라. 여섯째,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유형이건 무형이건 모든 물건에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라는 윤리적 법칙 the Ethical “no free lunch” rule). 만약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이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이 물건은 가치가 있고, 만든 사람은 물건에 대한 댓가를 원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어떠한 윤리적 규율도 동시대의 상세하고 비판적인 눈을 가진 철학자에 의하여 인정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합리적이고 실존하는 예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위한 절대적인 안내 지침서로 사용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율을 쉽게 통과할 수 없는 행동들은 관심과 주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당신에게나 당신 회사에 실제적이고, 비윤리적 행동이 해를 끼치는 것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잠재적인 비도덕적 행동이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주의해서 그 상황을 관찰하여야 한다.

다음은 윤리적 규약을 검토하고자 한다.

(3) 윤리 규약 사례<sup>17)</sup> ; 많은 조직과 협회에서 윤리에관한 규약을 제정하고 있다. 대표적 기관은 다음과 같다

- DPMA(the data processing management association)
- ACM(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 IEEE(th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BSC(the british computer society)

첫째, DPMA 윤리 규약 ; DPMA는 자신의 회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 규약과 행위 규범, 그리고 실행절차등을 定意하여 義務移行을 요구하고 있다. DPMA 규약은 다음의 영역별로 회원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정의한다. 관리에 대한 의무, 동료 회원에 대한 의무, 고용주에 대한 의무이다. 각 주제에 대해 행위 규범이 DPMA 회원으로서의 특정의무와 책임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강제 규정은 DPMA회원에 대한 불만 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로 작성하여 공증을 거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당한 DPMA 회원이면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

#### <윤리규약>

나는 다음을 서약한다. 나는 管理의 義務를 지고 있으므로, 情報處理過程과 모든 資源의 使用에 관한 管理節次에 관한 理解를 增進시킨다. 나는 동료 회원에 대한 의무를 지니며, 국제 조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 DPMA의 높은 이상을 지지한다. 또한 나는 동료 회원과 협력하며 항상 정직과 尊敬心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다. 나는 社會에 대한 義務를 가지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公共의 開發과 정보시스템의 理解促進에 기여하는 정보의 補給에 참여한다. 나는 정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은밀히 사용하지 않으며 私生活을 侵害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신뢰하는 고용주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해 이 의무를 수행하고 고용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현명하고 정직하게 조언을 하도록 노력한다. 나는 개인으로서의 책무와 이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이 의무를 이행하고 목표를 위해 헌신할 것이다.

17) 강석주 · 박주석, 경영정보시스템, 박영사, 1995년, P.P.720~722

## 둘째, 직업상의 행위에 관한 ACM 규약

ACM은 캐논(canons)이라고 불리는 직업상의 행위에 관한 다수의 일반 원칙을 제정하였다. 각 캐논은 윤리적인 고려 사항과 원론적인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ACM 회원은 항상 통일적으로 행동한다. 모든 ACM 회원은 이 분야의 경쟁력과 명예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모든 ACM 회원은 자신의 일과 관련된 책임을 가진다. 모든 ACM 회원은 직업상의 책임과 함께 행동한다. 모든 ACM 회원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위에서 서술한 것을 바탕으로 경영 활동에 사용되어질 정보관리에 있어 윤리의식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 다음은 기업의 정보 윤리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3. 기업의 정보 文化와 윤리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Efficiency)인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를 이용해 가고 있다.

정보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기에도 정보 활용이 있어왔다. 정보활동의 시점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그 시기를 같이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다.

기업의 정보문화와 윤리(Information Culture and Ethics)는 기업조직내 분위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가령 명령과 규율이 엄격한 기업의 정보문화와 윤리는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고, 그 반대로 조직의 각 부서간에 자율성이 강한 조직 시스템에 있어서는 그 만큼 개방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러나, 그 조직이 폐쇄적이든, 개방적이든 간에 사업환경(Business Environment)이 서로 다른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가지 정보 문화가 존재하기란 쉽지 않다.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는 내·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국적기업이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전략수립과 함께 이에 알맞은 정보윤리 문화사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구성원(조직원)의 정보 활용 형태를 규정할 수 있는 4가지 정보문화를 음미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의 기능적(Functional of Information)측면을 강조하는 통제형 정보 문화다. 주로 명령과 통제가 강한 조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기업 정보는 주로 내부 통제를 위해 이용된다. 하지만 여기서 통제라는 개념이 항상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사례로, 스위스 - 스웨덴 합작기업인 ABB社는 일친육백개 이상의 국외 사업체를 관리하기 위해 이들에게 정기적인 재무보고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ABB社는 경영총 입김이 직접 미치기 어려운 외국사업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좋은 사례이다. 둘째, 정보 공유(Sharing Culture and Ethics) 기업조직내 정보를 노사가 함께 나누는 정보공유측면을 강조한 정보윤리다. 부서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은 -<PC나 Internet등>- 물론 기업내 문제점을 부단히 시정하고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셋째, 탐구측면(Inquiring Culture and Ethics) ; 기업구성원들이 미래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검색하기 쉽게 하는 탐구측면을 강조한 정보문화윤리다. 많은 기업이

소비자에 대한 기호 분석, 시장조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미래에 대비한다. 특히 반도체처럼 제품주기가 짧고 혁신적인 상품개발이 이어지는 산업에서는 최고경영자에서 현장 일선 직원까지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보다 많고 혁신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넷째, 새로운 발견 (Discovery Culture and Ethics) ; 정보 재구성과 새로운 발견을 강조한 정보윤리다. 이러한 정보윤리를 갖춘 기업은 심각한 위기와 변화에 직면했을 때 기존에 정보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구사업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신상품개발과 서비스제공에 나설 수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MS)사가 최근 기존 사업(Business) 이외에 온라인서비스와 영상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단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한결음 더 나아가 기존 사업방식과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한 좋은 예이다.

기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각기 다른 정보사용 문화와 윤리를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전략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하는 점이다. 만약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기업의 주도적인 정보윤리가 조직통제라는 정보의 기능적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총체적 품질관리(TQM)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윤리가 구축돼 있지않다면 이 같은 기업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전략과 주변 사업 환경(Business Environment)에 알맞은 정보문화와 윤리를 기업 내부에 장려하고 육성시켜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 V. 결론

정보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들은 자신들을 때때로 전문 직업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 집단들은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위에서 열거한 윤리적인 원칙에 입각한 도덕적 판단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보 기술을 다루는 이들은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써 미래를 보는 시각,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용주, 상위 관리자, 고객 그리고 사회에 더욱 한정된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자기 일 (job)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인들 의료인, 법조인, 컴퓨터 전문 직업인의 단체 Association of Computing Machinery같은 조직이다.

ACM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필요한 전문 직업인의 행동 규약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들 행동규약은 그들 스스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의 건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공의 복리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기술을 다루는 동안 그로 인한 것들이나 정보기술을 통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중에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들의 고용주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관리 실천 원칙들을 생각해 본다. 비밀로 존재하는 개인의 신상 기록 시스템이 없어야 한다.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에 접근, 조사, 재검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해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는 수집된 개인의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시스템 관리자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끼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심지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사설 단체 사이의 정보 교환관계를 간섭할 수 있고 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우리 나라도 정보기술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기술을 다루는 윤리 의식의 정착을 위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이같은 일을 위해 입법기관의 깊은 배려와 함께 입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겠다.

끝으로 기업에 있어 정보기술을 다루는 자세는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철저한 정보검색을 통한 정보관리가 이루어져야겠다. 정보기술 사용자세를 더 한층 강화하여 자료 및 정보를 다루는 그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정보기술을 취급하여야 겠다.

## Bibliography

- Deborah G. Johnson, Helen Nissenbaum , Computers, Ethics & Social values, 1995 by prentice - Hall, INC.
- Alfied A. Marcue, Business & Society (Ethics, Government, and the World Economy), 1993 by Richard D.Irwin, INC.
- Fraser Seitel, The Practice of Public Relations(fifth edition), 1992 b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Michael S. Scott Morton, The Corporation of the 1990s. (Information Technology and Organization Transformation), 1991 by sloan school of Manag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Drnald F. Kuratko, Richard M. Hodgetts, Entrepreneurship (a contemporary approach), The Dryden Press, 1992.
- June Jamrich Parsons , New Perspectives on computer concepts, 1994 by course Technology, INC.
- Kenneth C. Laurdon. Jane Price Laurdon,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organization and Technology), 1994 by Macmillon College Publishing Company, INC.
- Franklin R. Root, Entry Strategies for International Markets, 1989 by D.C. Heath and Company.
- Warren J. Keegan, Global Marketing Management, 1989 by Prentice-Hall, INC.
- David P. Baron, Business and its Environment, 1993 by Prentica Hall,INC.
- Brian Toyne, Peter G. P. Walters, Global Marketing Management (a strategic Perspective), 1993 by allyn and Bacon.
- Steven P. Schnaars • Marketing Strategy, 1991 by Stevn P. Schnaars.
- Philip Kotler, Gary Armstrong, Marketing, 1994 by Prentice-Hall. INC.
- Philip R. Cateera, International Marketing, 1993 by Richard D. Irwin, INC.
- Eric Von Hippel, The Sources of Innovation,1988 b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R. Wayne Monday. Shane R. Fremeaux, Management, 1993 by allyn and Bacon.
- 한국국민윤리학회, 제 3회 한·중·일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1996.
- Kenneth C. Laudon • Carol Guercio Traver • Jane Price Laudon. Information Technology, 1995 by boyed and fraser Publishing Company.

# Ethics in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for Business Management.

## <Abstract>

Ethics refers to the principles of right and wrong that can be used by individuals acting as free moral agents to make choices to guide their behavior.

Information technology has presented our human mankind not only prosperity but also harms. This is why moral aspects should be addressed in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system.

First, a transforming tendency of international economy will be observed.

Second, many issues regarding ethics and behavioral courses will be discussed. And a trend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ve moral models will be examined.

Third, traditional morals of Koreans and attitudes of Westerner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will be analyzed.

Fourth, it will be also discussed how private firms understand ethics and culture in the context of information handling.

It is suggested that individuals who use information technology cultivate efficient and effective ethical principles contributing to public good in the society.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relevant legal devices.